

동남아 공동사 개발을 통한 평화의 문화 증진

김광현*

요약

국제이해교육은 교육을 통해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네스코의 주요사업이며 평화문화 증진을 기반으로 문화, 종교, 인종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양성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동안 유네스코는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독일-폴란드 역사교과서, 중앙아시아사, 아프리카사 등, 화해를 위한 역사교과서 출간 작업을 해 왔다. 유럽연합은 1991년에 12개 회원국의 대표적 역사학자들이 참여해 공동 유럽 교과서를 출간했으며, 이것은 오늘날 그들이 세계적으로 앞선 지역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었던 데에 한 몫을 했다. 오는 2015년을 시발점으로, 동남아시아 10개국들은 단일한 경제권을 이루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들 간 사회·문화적 유대강화 또한 절실한 시점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역사 발굴'은 지금 그들에게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 공동사 발굴을 통해 역내 갈등과 분쟁의 요소를 감소시키고 화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이 지역사 연구가 전통적인 민족주의나 배타적인 국수주의를 자아냈었다면, 동남아시아 공동사 연구는 지역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갈등 및 분쟁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남아

*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사회철학박사

시아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강한 역사관을 거론해 보았으며, 유럽의 공동교과서 경험 등을 통해 동남아 공동사 개발의 틀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역사를 통한 평화문화의 형성은 정부나 시민단체가 끝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유네스코와 같은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앞장선다면, 이는 2015년 아세안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주제어: 동남아 공동사, 평화교육, 문화다양성, 역사철학, 세계시민교육

I. 서론

흔히들 세계화로 인해, 사람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든다 생각한다. 현재 EU 국가들은 자유롭게 왕래하고 무역을 하고 있다. 관세 없는 자유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공통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회원가맹국들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와 체코 국경은 검문없이 승용차, 버스나 트럭이 왕래하고 있다. 이러다 보면 국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 국민국가는 남아있으면서, 지역내 글로벌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체코기사가 모는 버스에 프랑스인 가이드, 한국인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관광에이전시가 구성되어 운영되어도, 한국관광객들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흔히 자국의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교육하는 현시대의 역사교육은 어떠한가? 지역간 과거의 분쟁과 갈등은 어떻게 해소되고 화해되고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된다.

유네스코는 1973년부터 국가간 상호이해와 평화문화를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회원국 사이에 역사인식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정재경, 2013)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역사교육은 민족주의, 인종주의, 지역주의 등의 편견에서 벗어나, 상호이해와 우호협력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유네스코는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독일-폴란드 역사교과서, 카리브해 역사서, 중앙아시아사, 아프리카사 등 역사화해를 위한 역사교과서 작업을 해 왔다. 유럽연합은 1991년에 12개 회원국의 대표적 역사학자들이 참여해 공동 유럽 교과서를 출간했다. 30년 전쟁 등 수 백년동안 전쟁의 화약고 같았던 유럽이 세계에서 앞선 지역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노력이 한몫을 차지한 것이다.

1. 동남아시아도 공동사가 있던가?

국제이해교육은 편견과 무지에서 벗어나 올바른 이해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요사이 교과서 논쟁은 역사 논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역사는 사실보다는 시대의 역사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에게 친근한 지역, ‘사돈의 나라’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에 주목하고 그들의 역사를 접근하려 하지만, 변변한 역사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동남아시아사 전공자들은 베트남 역사, 혹은 태국 역사 전공자들이 대부분이다. 2007년 한국과 자유무역협상을 체결한 지역인데, 우리는 동남아 국가의 역사 및 문화를 잘 모르고 있다. 사실 그들이 자국 역사에 크게 천착하지 않은 것도 있다.

역사를 파헤쳐가는 것보다는 현실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동체 삶보다는 개인적인 삶을 중시하는 그들의 성향도 일조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동남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족주의 의식이 활발해지고 민주주의 참여나 지역공동체 정체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태국 역사교과서에 민족주의나 아세안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한다.

여기서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겠다. 왜 ‘공동사’가 중요한가? 1945년 일본 제국세력이 물러난 후, 과거 이지역의 식민통치 국가들은 각 지역의 민족주의에 발흥된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각기 독립역사에 기반한 레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아세안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적 접근을 하는 공동사가 필요한 것이다.

1967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 발족 되었으나, 회원국들간에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 각국의 문제에 개입 안하고 있다. 유럽에서 유럽공동체가 공식발족이 1967년이 된 것을 보면, 이 지역 국가도 세계대전 후, 해방을 맞이한 후 지역공동체 구성이 절실했던 것을 볼 수 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전아세안 사무총장 수린(Surin)은 동남아 10개 국가들이 오는 2015년을 시발점으로, 유럽연합(EU)처럼, 단일한 경제권을 이루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1) 유럽공동체는 6개국이 가입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구성된 1957년으로 기초로 본다. 1958년에 이 단체를 모태로 유럽경제공동체 EEC를 발족시킨다.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지역에선 경제만이 아니라 국가들간에 사회·문화적으로도 유대를 강화할 끈이 절실한 시점이라 말하며, 시기적으로 오늘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공동의 역사 발굴’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urin, 2013).

한편으로 공동사 발굴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몇몇의 문제가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역사교육을 정치사회화를 통한 국가적 상태로 확장하기 위한 목표 때문에 국가별 역사 교육의 커리큘럼은 동남아시아사 교육보다 국사 교육이 초등, 중등학교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역사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운동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F. Aguilar, 2013).

2. 동남아 공동사는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가?

우리가 아는 역사는 객관적 사실(fact)일까 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걸까? 역사는 사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역사가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에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historian)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그 중요성의 경중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William H. Dray, 1964).

‘역사적 사실’에 강조점을 둔 역사학자는 랑케(von Ranke)이다. 그는 역사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역사적 사실을 잘 모아서 인과관계를 잘 이루어지게 하면 객관적 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크로체는(Croce) 역사적 사실

이란 역사가 찾아놓은 것에 불과하며, 그의 손길을 거쳐서 나온 것이라 본다. 그는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적 산물이며, 객관적 역사는 불가능하다 보았다.

E.H.카(Carr)는 두 입장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한다. 역사의 두 요소인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는 분리될 수 없는 변수이고, 이 둘이 서로 끊임없이 대화할 때 진정한 역사가 가능해진다고 본다.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성장한다. 자기 정체성의 확인을 물으며 성장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가 되어 자국의 역사나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고할 때, 자국 및 공동체의 역사가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안 되게 함이라”고 말한다. 즉 폭군의 역사를 알게 되면 절대군주의 역사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강대석, 1991).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과거를 잃으면 미래가 없다. 현재의 삶에는 과거의 것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과거를 이어가고, 재생시키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삶속에 과거가 있다.

그런 점에서, 독일 철학자 아도르노는 “전통만 고집하는 행위...전통은 그대로 고수할 수만도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모순적인 것이다”. “전통을 반성하고, 고수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다(Max Horkheimer & T. W. Adorno, 1972)”.

역사는 신 이외는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할 수 없을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선입견이라는 안경을 쓴 채 다른 역사를 쓰게 된다. 사실

의 조합만을 역사라고도 말한다면 아주 편하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그다지도 사실(fact)에만 만족하지 못한다. 권력에 의해서, 각기 사조와 유행에 의해서 역사기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의 가치관을 어떻게 개념 형성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 교과서는 젊은 이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왔으며, 무엇을 향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실을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역사의 큰 틀을 보는 사관이 건강해야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공동사 연구에서도 동남아시아를 지역공동체로 보느냐, 개별국가의 역사 총합체로 보느냐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동남아시아 공동사를 지역공동체 개념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앞으로 출범할 아세안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공동체 당위성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사회,문화 공동체 맥락을 연결시키려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아울러 공동사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간의 화해를 넘어서, 주변국과 자국의 역사 비교를 통해서, 공동협력을 이끌어내고 연대를 꾀하는 것이기에 공동사의 사관(史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II. 본론

1. 현재 분쟁과 갈등의 상황

국가연합은 국가간 연합들 총합이고, 인터네셔널은 국가간의 관계이다(후쿠이 노리히코, 2013). 2)네이션(nation)은 아직 개별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도 자신들이 동일한 역사적 유래와 언어문

화를 갖고, 따라서 국가를 형성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을 의미할 수 있다. 이 경우 네이션은 민족을 뜻한다. 네이션은 한편으로는 국가, 국민, 민족의 3중 의미를 갖는다. 가속화되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는 곳곳에서 역사적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제국주의시대 열강의 편익적 분할에 따른 영향과 종교적 갈등 영향도 하나의 원인이다. 동남아시아는 고대로부터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가 국경으로 경계 지워진 영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해상교역으로 활발해진 도시국가 중심으로 원심형으로 발전해온 국가형태이다(매리 하이듀즈, 2012). 필리핀은 바랑가이 공동체가 구심점이 되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도리어 서양세력들이 근대국가 틀을 마련해 준 형태이기도 하다. 동남아는 국민국가 형태를 지닌 전통이 거의 없는 편이다. 요새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 정책으로 동남아 지역 이주민에게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를 태생적으로 체득하고 있다. 다문화를 배워야 할 민족은 한국인들이다.

다음은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인 분쟁과 갈등 지역이다. 크게 종교 분쟁, 전통적 지역간 분쟁, 문화유산 분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공동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 분쟁

태국의 수코타이 왕국 건립 전부터 현재 태국령 남부 이슬람지역

2) 후쿠이 노리히코(2013), 유럽은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송태욱 옮김, 다른세상. 256

에 빠타니(pattani) 왕국이 있었다. 빠타니 왕국은 시암에 밀리게 되었고, 시암은 버마를 몰아낸 뒤 라마1세가 짜끄리 왕조를 열어 번영하였다. 1902년 시암은 빠따니 왕국을 무력 병합하고, 1909년 방콕조약이 합병을 추인한다. 태국 남부 이슬람 지역, 3개주는 여전히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게 된다.

나.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분쟁: 사바(Sabah)지역

보르네오는 원래 해양부의 무슬림 지역의 땅이었다. 무슬림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대개 술탄 왕국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이른바 보르네오의 사바지역은 원래 필리핀 무슬림의 한 왕국이 지배하는 사회였으나,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지배를 공공히 하기 위해서, 동시에 1967년 출범한 아세안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사바지역을 말레이시아로 넘기게 되었다. 근래에 들어와 이슬람 민족주의의 부활과 함께 분쟁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다. 태국과 캄보디아 문화유산 분쟁

200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레아비히어 사원 Preah Vihear> 영유권 분쟁으로 2011년 2월 양국 군인들의 총격전이 있었다. 이 유산은 11c 크메르 왕조시절 세운 900년이 넘는 힌두사원이다. 1950년대부터 영유권 분쟁을 벌여 와서,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에 속한다고 판결했지만, 부근 땅의 경계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Charnvit Kasetsiri, 2013). 캄보디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구 식민통치 정부가 무원칙적인 국경설정으로 인해, 태국에서 사원 접근이 용이하게 된 편이고,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게 되자, 태국은 여전히 영유권 제기를 하면서 양국은 유혈 충돌이 생겼다(UNESCO World Heritage center, 2012).

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분쟁: 불교와 이슬람교도 분쟁

1962, '78, '91년 미얀마 서부 아라칸 주 로힝야족 무슬림은 종교적 자유를 위해 방글라데시로 넘어갔으나,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 경제난으로 인해 이들을 수용 못해 난민이 되었다. 또한 인근지역 불교도인 라카인족과 로힝야족이 충돌해서 사상자 및 난민이 발생하는 등 민족·종교적 충돌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두 민족간의 유혈사태는 인도네시아에서 미얀마 종교인 및 근로자에 대한 테러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연합뉴스 2013.4.24).

마.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카슈미르, 이슬람분리 운동

1948년 유엔중재로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양분되었지만, 양측은 카슈미르에 대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인도령 카슈미르는 인구다수가 이슬람교도들이다. 이들은 소수 힌두교 통치에 반발, 파키스탄 병합을 주장하면서 유혈투쟁을 하고 있다.

바. 인도네시아 아체분쟁과 동티모르 독립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단의 아체지역은 오랜 이슬람 전통을 갖고 있다. 말라카 해협을 끼고 있어서 오랫동안 전쟁의 참화를 거쳐 오면서 강인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다. 네덜란드도 이 지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식민지 전쟁을 치루었다. 해방 후 아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피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군 학살이 있었다(매

리 하이듀즈, 2012). 한편 1998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동티모르는 인구 대부분이 독립에 찬성해 동남아 11번째 국가가 되었다. 총선이 후에 친인도네시아 군인이 살인과 방화로 동티모르인을 학살하고 인도네시아 합병을 추구했다. 이런 갈등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사태를 진압하고 독립을 보장하였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사에서 위와 같은 인접국가와 분쟁, 종교문제, 사회적 갈등 주제들은 회피하거나 제외시켜 버린다. 때로는 주변국의 저항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을 제외한다면, 학생들은 과거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얻게 되고, 주변국들과의 평화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동남아 공동사 교과서 작업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갈등 사례를 다루어야 한다. 일례로 역사적 화해를 이루는 데 공동 역사교과서가 효과적이라는 점은 유럽에서 이미 입증 되었다. 독일과 폴란드는 ‘교과서 개발 회의’를 26회나 열면서 적대적 입장을 누그러 뜨렸다.³⁾ 독일과 프랑스도 역사대화를 거듭한 끝에 2006년 5월 공동역사교과서를 편찬했다. 각국의 교과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가운데 국민이자 세계의 일원으로서 주변과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다. 게다가 공동사는 미래 세대에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대중교육의 매개체이며,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감정적 울화’까지 해소할 수단이다.

3) 폴란드에서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도 독일인과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공동교과서를 통한 지속적인 역사대화에서 폴란드인들은 독일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갔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대화를 통해서 공동의 인식에 도달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안정된 국가간의 관계를 유지한 경험은 동남아시아에서 적용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동남아시아는 동아시아보다 개방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가들끼리 연대 증진에 노력하고 있기에 이런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동남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사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동남아 공동교과서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동남아시아 역사교육 현황

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4) 중심으로

현재 한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학제간 연구는 지역별 경제 및 언어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합하는 공동의 역사를 각국의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관한 현실을 조사분석해야, 동남아 공동사 틀의 견고한 프레임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의 동남아 공동사 틀은 교과서, 교육법, 교사, 교육자료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또한 동남아 10개국을 모두 다루기 보다는 중요 국가의 역사 특성을 거론하는 것이 공동사의 연구토대 구축에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의 동남아역사 교육 및 각국 역사 교과서 현황에 대해 살펴 보겠다.

4) 본 장은 2013년 9월 16-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 공동사 발굴을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에서 각 나라에서 발표된 원고를 조사분석한 것임.

1) 베트남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교육의 주요 테마는 베트남과 라오스의 다른 인도차이나 국가들, 캄보디아간의 밀접성이다. 이 밀접성은 동남아시아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을 다루는 방식에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같은 단원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반면,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독립 단원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역사의 이념적 관점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남아시아사의 시대구분을 할 때 사회 혁명(유럽의 부르주아 혁명, 파리 코뮌, 러시아 10월 혁명, 제 1, 2차 세계대전)이 기준이 된다. 또한 외세 저항, 계급투쟁과 자본주의 착취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셋째로, 개념화 역시 역사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과서에서 동남아시아를 다룰 때 ‘미국 체제를 따르는 자본주의 성향과 미국을 반대하는 사회주의 성향’이라는 냉전체제에서의 사상적 분류를 이용한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외교정책이 ‘대립’에서 ‘대화’로 나아감에 따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용어를 자제하는 편이다.

역사 교과서는 시민의식과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어린세대들을 위한 애국심 고취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어린 세대들은 역사를 배우는 것에 대해 흥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없었지만,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를 가까이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암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였다(UNESCO-APCEIU, 2013).⁵⁾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국민교육체제 안에

5) UNESCO-APCEIU(2013), *Promoting Intercultural Dialogue and a Culture of Peace in*

서 역사 과목이 제대로 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다.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역사는 단지 1주일에 1-2시간정도 보충수업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다. 셋째로, Dinh Xuan Lam이라는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역사 교과서 집필자는 역사 교과서 자체가 학생들의 역사 과목 흥미의 부족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방식이 구식이며, 특히 오래된 역사 이해 방식이 아직도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역사 교과서들이 통합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역사학자 Do Bang 역시 ‘학생들의 두려움은 역사 교과서 그 자체가 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교과서는 냉전기간 동안의 동남아시아를 두 개의 이념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미국에 대항하고 사회주의에 동참하는 그룹 및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는 그룹 등이 그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진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 비 사회주의적인 국가들은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영향에 오염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교과서들은 민감한 정치적인 용어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결속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문체로 쓰여졌을 뿐이다. 베트남은 SEATO (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동남아시아조약기구) 군사 연합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전쟁'과 아세안의 등장 및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 캄보디아

캄보디아 역사 교육의 새로운 경향은 인접 국가들의 침략 전쟁과 영토 지배에 대한 애국적, 민족주의 관점보다는 국가 정체성 인지를

South-East Asia through Shared Histories, UNESCO Bangkok & APCEIU. 119-120

강화시키기 위한 역사 학습, 상호 문화 가치관, 평화의 문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사회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과 ASEAN 회원국으로써의 캄보디아 정부, 그리고 지역 역사에 관한 지식은 국가 교육 과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학은 가까운 미래의 지역 통합에서 나올 이익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제 2의 초점이 되고 있다.

3) 태국

태국정부는 동남아시아 공동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세안의 역사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고자 한다. 태국에서는 아세안 연구와 관련해 특별 과목이 도입됐다. 그러나 이는 필수 과목은 아니다. 필리핀과 많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의 제도적 뼈대를⁶⁾ 동남아시아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아세안의 뼈대가 널리 퍼져있는 것을 고려하면 다양한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리 운동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아세안의 국가간 뼈대가 기준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인가한 공식적인 역사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말레이 주와 식민지전 말

6) Southeast Asian identity to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ASEAN. 각 나라 초중등 학교교육에서 아세안 연구 과목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세안이라는 지역기구 필요성과 역할을 공부하고, 사회 문화공동체로 회원국가 간 교육 및 문화네트워크 형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시아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논의는 말레이시아 역사와 관련해서만 등장한다.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북 말레이 주들과의 연계 속에 논의되고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것이 설명되는 등이다. 필리핀은 사바 주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교과서에서는 이렇지 않았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반식민주의나 민족주의의 주제와 관련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동남아시아가 지역주의적인 관점과 말레이시아의 지역 기구(특히 아세안)에서의 위상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고등 교육 교과서는 동남아시아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5학년과 7학년에서만 스리비자야와 일본의 침략 등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6학년과 9학년에서는 한 과에서 인도네시아와 ‘이웃 나라들’과의 비교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과는 역사와 관련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세안과 모든 9개의 회원국들이 하나씩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밤방 푸르완토는 8학년에서는 “교과서 전체에 동남아시아 역사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상위 고등 교과 과정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 역시 동남아시아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12학년에서만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는지” 놀랄 것도 없는 이유다(UNESCO-APCEIU, 2013).

6) 필리핀

필리핀은 바랑가이 개념 위주로, 즉 커뮤니티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면서 부족공동체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다. 스페인이나 미국의 지배를 받아 통일국가 형태로 발전해나갔지만, 필리핀인들의 애국심은 강한 편이 아니다.

필리핀의 공립학교 교재들은 동남아시아의 정체성을 아세안의 제도적 틀 및 아세안의 구성 기구 및 조약 (ex, SEATO) 등과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방콕 선언의 7가지 요점이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다. 아세안의 전신 (ex, ASA⁷⁾) 등도 지역별 협력의 초기 사례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다.

필리핀의 역사 교과서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국가의 형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국가 정체성을 배우게 한다. 교과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배분되고 표준 교과 과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개념을 표준화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동남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에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특히 공립학교의 교과서와 교육 자료들은 매우 부족하다. 대다수의 필리핀 고등학교 학생들은 국가 계양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보여 지는 국가에 대해서는 익숙하다. 그러나 한 지역으로서의 동남아시아에는 노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립학교보다는 교과서 의존성이 높은 공립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중산층 집안의 학생들로, 집에서 인터넷과 케이블 TV, 방콕이나 베트남으로의 수학여행 등을

7)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말레이시아 라만 수상이 필리핀의 카르샤 대통령과 아시아인만으로 상호협력기구 창설을 합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61년 6월 29일 방콕에서 발족되었다.

통해 다양한 교육 자료와 경험을 통해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역사교과서에서 2차 세계대전은 종종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역사와는 연계되어 설명되지 않는다. 이 시기는 국가 역사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앤소니 레이드(1988)가 썼던 것처럼 과거 동남아시아 역사의 오랜 투영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공통된 역사는 엄밀히 말하면 2차 세계 대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당시는 베네딕트 앤더슨(1998)이 언급한대로 동남아시아 전역이 일본이라는 하나의 힘 아래 놓여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또한 도날드 에머슨(1984)이 수년 전 언급한 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식적인 국명 짓기가 시작된 역사적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UNESCO-APCEIU, 2013).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패권에 경험한 공통된 경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이전의 사건들, 특히 논쟁적인 종류와 정치적인 역사를 제외한 역사들은 아세안이 모든 중요한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아세안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을지라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연합으로 합쳐질 경우 문제가 일어난다. ECSA (European Community Studies Association)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론이 나왔다. 이러한 현황조사를 미루어 볼 때, 동남아 공동사 틀을 위해서는 아세안에 대한 기본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3. 동남아시아의 공동교과서의 접근 방향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프랑스 등 참전국 간의 역사대화를 주도함으로써 유럽지역의 역사화해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독일-프랑스 공동사 교과서⁸⁾, 독일-폴란드 공동사 교과서 간행을 힘써왔다. 독일에서는 1952년 이래로, 독일-프랑스 교과서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교과서 편찬을 위해 노력해왔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독일과 프랑스의 일부학교에서 사용된 이 교과서는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폴란드는 1972년이래로 활동해 오고, 2008년에 중학교 1학년과정을 위한 공동의 교과서 발간을 협의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중동평화연구소와 국제교과서 위원회(GEI) 주도로 양국 교과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6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공동사 교재가 발간되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8).

한편 1964년-2009년까지 『유네스코 아프리카 역사』는 총 8권의 아프리카사(General History of Africa)를 편찬해 아프리카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부여에 힘을 불어 넣었다. 그리고 1992년 중앙아시아사(History of Civilization of Central Asia), 2004년 카리브해 역사(General History of the Caribbean), 2005년 한중일 공동사: <미래를 여는 역사>⁹⁾, 2012년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가 발간되었다. 이 교재는 ‘지역’ 관점에서 3국이 상호협력하여 근대사를 다룬

8) 이 책의 궁극적 목적은 양국이 역사화해를 도모하기보다, 독일과 프랑스 역사를 유럽사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

9) 한중일 3국의 역사문제는 1982년과 2001년에 일본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국제문제화한 것을 계기로 크게 확산되어 왔다. 이 교재는 근·현대사만 다루고 민감한 역사는 빼는 등 전체 역사를 다루지 못했다.

동북아 최초의 공동역사책이다. 이 2권의 교재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에도 역사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교과서가 출범한 이유가 동북아지역의 평화운동이고 새로운 동북아시아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기도 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역사교과서,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화해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서술의 방법은 공동으로 합의된 부분은 공동사로서술하고 서로가 화해되지 않는 부분은 대립된 역사 병기하는 서술 형태로 기술하여, 양국의 역사의 다른 이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동남아 공동사교과서의 접근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다.

가. 각국의 역사 서술을 통해서, 정치사보다는 공동문화사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국 역사가들이 분담해서 쓰기보다는 토론과 합의에 따른 공동집필이 목적이어야 한다.

2001년부터 시작된 동북아 공동 교과서 구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진행된 역사대화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다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21세기의 역사대화는 단순히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역사가 아니라 ‘다자간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지역의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서술은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 최대 효과’의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의 문화적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간 교류 및 공동문화 찾기 프로그램부터 접근하여,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연대를 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동남아공동사 각기 부분을 맡아서 병렬식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관용의 원칙으로 공동역사를 집필해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평화의 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이다.

나. 고대보다는 근대, 근세의 역사부터 시작하고 나서, 중세, 고대로 연결하여야 한다.

동남아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구전의 역사 또는 벽화의 역사이다. 그나마 역사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불교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 왕의 비문에서 그 역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 계통의 언어로 비유적으로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해명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개 현재 국경이 지워진 동남아 역사는 서구열강의 침략시기 때부터 시작한다. 근세의 역사부터 서술해서, 근현대의 역사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근현대 서구의 민족주의 대두와 함께, 동남아에도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 도시국가 유형(싱가포르) / 지역 공동체 유형(필리핀)/ 강한 역사적 동질성 유형(베트남)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카테고리화 서술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세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범주화 해 보았다. 동남아 11개국은 각기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 민족주의 보다는 지역 공동체의식이 강한 나라, 2차세계대전후 도시국가로 독립한 나라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 역사시기의 장단점을 모두 맞추기 어려

우므로 특성화시키는 것이 상대화된 역사를 분별하기가 용이하다.

싱가포르형 도시국가는 중국화교의 해상무역교류 역사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대 싱가포르는 이주민이 1/3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혼합문화의 대표적 사회유형이다. 과거의 싱가포르 역사를 추적하고 탐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싱가포르는 화교들이 중심이 되어 말레이시아로 분리 독립한다. 무역중개 도시 형태로 시작한 것이다.

필리핀형 역사는 서구열강의 교류로부터 시작한다. 흔히 마젤란 향해 접촉 때부터 본격적인 역사서술이 된다. 서구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비로소 ‘필리핀’사람으로 묶였던 특수성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필리핀 역사는 민족주의 역사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주한 공동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집합체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공동체의 연방으로 국가가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도서부 국가들은 이런 유형이 독특하게 드러난다. 인도네시아도 널리 퍼져있는 섬들이 통일체를 이루기보다는 각기 연합하여 정치적 공동체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형 역사는 유교적 전통에 기초를 둔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띤다 할 수 있다. 외세 침략에 저항하면서 독립적인 국가 정체를 둔 유형이고, 민족정신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국가형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듯이 동남아 공동사 개발은 유럽처럼 정치적, 혈연적 공동체 유형보다는 각기 지역적 서술이 공동문화를 잘 보여준다.

라. 한중일 공동사교과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역으로서의 동남아’에 충실해야 한다. ‘두개의 다른 시선’이 공존하기에, ‘지역으로

서의 동남아'에 주목해야 한다.

한중일 공동사교과서에서는 문화교류사로 부터 접근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한일고대사 경우에 일본의 가야국 정벌과 한국의 일본 도래 병기는 서로 다른 역사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프랑스 공동 교과서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을 때에는 상반된 주장을 병기하는 것도 역사의 중립적 서술의 한 방법이다. 동남아 지역을 현재 그어진 국경으로 설명하려 할 때에는, 대립과 갈등하는 역사 요소들이 많다. 따라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연대해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 지역의식이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한 역사서술이 필요하다.

마. 자국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접국가 역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자국 역사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하다. 자국 사에는 그들의 뿌리를 찾는 고대사에 관심 갖기보다는 현대시기의 인접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국에 대한 정체성을 세운 뒤에야, 동남아 지역 공동 정체성 구축을 위한 틀을 마련할 수 있다. 가령 먼저, 다른 동아시아 국가처럼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보다 유연한 결연체로서의 공동체 의미를 갖는 특수성을 기술한다. 다음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인접국과의 문화 교류 속에서 필리핀의 국가 정체성을 볼 수 있다. 그 후 아세안에 초점을 두어야 대화유지나 갈등해결의 다자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UNESCO-APCEIU, 2013).

바. 그 후에 공동사 연구를 통해 지역긴장을 풀고 역사화해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비록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장대하리라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교육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응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에는 과거의 기억을 성찰하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사 연구는 지역간 갈등의 가이드북이 되고 갈등을 수렴하는 지적 담론 공간이 될 수 있다. ‘포괄적 동아시아’는 지역협력기구 ASEAN이 동북아 국가를 끌어 들여 공간을 확장하고 협력을 꾀한 것이다. 동아시아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아세안과 관련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동남아시아’라는 범주는 종종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동남아시아 정체성은 ‘다른 정체성’, 특히 아시아 정체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의 경우 ‘아시안 정체성’은 보다 많이 다뤄지고 있는 범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정체성이라는 관념은 동남아시아 지역 역사 커리큘럼이나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올리버 월터스(1982, 1994)가 정의한 것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문화적인 유사성이나 동족간 유사성, 나머지 세계에 대한 개방성 등은 동남아시아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역사의 적용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 된다:

① 고대 왕국 또는 문명 ② 식민지 시대, ③ 민족주의자들의 저항 또는 운동 ④ 아세안의 형성.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고르게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동남아시아 역사를 가르칠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주제들은 동남아시아의 개별 국가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사를 다룰 때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는다. 유사하게, 식민지, 민족주의 운동, 현대의 국가들은 개별적인 하나의 주제로 묘사된다. 아세안만이 이 지역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주제이다.

4. 역사교육은 평화교육이다.

2006년 9월 학기부터 독,불 고교 3년생들은 양국 역사가들이 공동 집필한 공동교과서를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총 355쪽에 이르는 데, 2차 세계대전이후의 현대사를 다루면서 2차 대전의 원인보다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희생과 피해에 초점을 맞추며 양국간 의견 차이를 피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6.5.6 일자). 이런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전쟁의 폐해와 희생에 주목함으로써, 역사 교과서가 양국 젊은이들로 하여금 평화의 문화라는 접근법을¹⁰⁾ 통해 건강한 역사관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성찰해야 후세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일제의 과거 식민지 경험이 한반도의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논리로

10) 유네스코에서는 2000년부터 ‘평화의 문화’ 데케이드 선언을 통해, 지구촌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 해결을 <국제이해교육> 확산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서, 그 시대의 잘못을 미화한다면 화해나 관용을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역사는 영웅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일정한 패턴이 되고 고정화되어 역사를 재생산할 때, 역사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의 본질과 목적은 역사존재 전체체계에 대한 물음이기에 존재론적인 역사철학이다. 인간존재의 본질은 다 드러나고, 결국 이러한 존재론을 떠나가지고 역사철학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칸트의 인간이성에 대한 존재론적인 근거는 결국은 세계시민의도를 가진 역사철학의 이념을 드러냈다. 앞에서 거론한 독불역사교과서는 유럽연합을 지역공동체의 놀라운 스토리로 묘사하면서, EU가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의 모델로 등장했다고 한다. 한국도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의 역사와 동북아시아 역사 편찬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여 및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이들과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에서 벗어난 다자간 협력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III. 결론

중국 격언에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있다. 즉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맹이부터 옮긴다”라는 것이다. 역사의식과 공동사도 국제이해교육에는 이런 속담이 맞는 것 같다. 다들 이런 프로젝트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군가가 시작해

야 하고 중립적인 국제교육전담기구인 유네스코가 실타래의 얽힌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환언해서, 전아세안 사무총장 Surin 박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동남아시아 공동의 역사 발굴을 위해 협력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노력이 단순히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정치적 경계를 넘어선 화합이 아닌, 모든 의미에서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동 역사는 지배계급이나 선택된 민족 영웅들만을 다뤄서는 안되고, 역사에서 외면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숨은 이야기, 실향민 집단, 소수 민족, 무국적 사람들, 그리고 국경 지역 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Surin, 2013). 동남아시아의 역사 연구와 관련하여, Surin은 과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의 역사학자들 및 학생들은, 주로 서양의 외국 학자들이 진행했던 연구 자료들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배워왔다고 설명하며, 동남아시아인들이 자신 스스로를 이해하는 ‘자기성찰’이란 면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고 필수적인 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역사연구를 해야 될 당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ibid). 이러한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인 스스로가 진행하는 지역의 연구 활성화와 이같은 연구가 타 지역출신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활용되는 것은 앞으로 장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교육현황과 관련하여, 동남아시아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비판적 사고를 가진 동남아시아의 사상가와 실천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진행되는 교육 전반의 개선과 발전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 공동의 역사 이해의 단단한 기반을 제공할만한 더 나은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15년 ASEAN 경제공동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과 함께 경제적인 면과 아울러 사회문화적인 면도 상호작용할 것이다. 이 지역은 다양한 문화, 종교, 정치체제가 독특하다. 이들의 독창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역사, 종교, 철학의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정치체제와 사회적 구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점과 공통관심을 관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사를 가르치는 것과 동남아시아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공동교과서가 제 역할을 하려면, 동남아 각국 교육부의 정규교육 커리큘럼에서 <공동사> 채택이 중요하다. 민족주의가 강한 동북아시아에서는 각국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힘들었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여력과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계와 시민사회, 국제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나서야 한다. 아세안과 유네스코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동남아 공동사>를 연구 출판한다면, 동남아 및 동북아 젊은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쌓아가는 데 큰 힘과 축이 될 것이며, 지역내 경제적·정치적 협력을 통해서, 평화의 문화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중수(2010), **신들의 섬 발리:지상 최후의 낙원을 찾아서**, 북코리아.

- 강대석(1991), **새로운 역사철학**, 한길사
- 김한중, 이영효, 유용태 외 (2005),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 메리 하이듀즈(2012),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 박장식, 김동엽 옮김, 솔과학.
- 신운환(2010), **동남아 문화산책**, 창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8),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오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8), 기억의 공유와 다원적 보편성, **제2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유용태, 박진우, 박태균(2010),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창비.
- 이언 M. 해리스, 메리 L 모리슨(2011), **평화교육**, 박정원 옮김, 오름.
- 페터 가이스, 기욤 르 쾅트렉외(2008), **독일프랑스공동 역사교과서**, 동북아역사재단, 휴머니스트.
- 정문태(2010), **현장은 역사다**, 푸른숲.
- 차하순편(1982) **랑케와 부르크하르트**, 탐구당.
- 후쿠이 노리히코(2013), **유럽은 세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송태욱 옮김, 다룬세상.
- Charnvit Kasetsiri(2013), *Preah Vihear: A Guide to the Thai-Cambodian Conflict and Its solutions*, White Lotus, Thailand.
- Collingwood R. G.(1978), *The idea of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 Filomeono V. Agulair Jr(2013), *Promoting Intercultural Dialogue and a Culture of Peace in South-East Asia through Shared Histories*. Preliminary Situation Analysis, UNESCO Bangkok & APCEIU.
- Joachim Ritter hrsg(2001),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Schwabe Verlag.
- Max Horkheimer & T. W. Adorno(1972), *Dialectic of Enlightenment*, John Cumming translated, xi-xvii.
- SEAMEO Regional Centre for History & Tradition(2000), *History Agenda 21*, Myanmar.
- Surin(2013), *Promoting Intercultural Dialogue and a Culture of Peace in South-East Asia through Shared Histories*. Address, UNESCO Bangkok & APCEIU. 3-7.
- The Curriculum Project(2008), *Southeast Asia: Student's Book*. Yangon.
- T. W. Adorno(1973), *Negative Dialektik*, suhrkamp,

UNESCO-APCEIU(2013), *Promoting Intercultural Dialogue and a Culture of Peace in South-East Asia through Shared Histories*, UNESCO Bankok & APCEIU.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2012), *World's Heritage*, UNESCO Publishing.
W.H.Walsh(1992),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History*, Thoemms Press
William H.Dray(1964), *Philosophy of History*, Toronto University. 윌리엄 드레이
(1990), **역사철학**(황문수 옮김), 문예출판사.

<자료>

경향신문. 아세안 공동 역사연구의 씨앗을 뿌렸다. 2013.9.18일자
연합뉴스. 인니대통령, 미얀마 이슬람교도-불교도 화해 촉구, 2013.4.24일자
조선일보. 불,독 함께 쓴 역사교과서 첫선, 2006.5.6일자
조선일보. 한일 민간연구자 함께 쓴 역사교과서 완성, 2007.2.12일자
유네스코뉴스. 유네스코와 역사화해(정재정), 2013.4.17일자.
Washington Post, *A culture of tales*(Irina Bocoba), 2012.

Abstract

Promoting of a Culture of Peace in South-East Asia through Shared Histories

Kim, Kwang-Hyun
(UNESCO-APCEIU)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EIU) is UNESCO's major business to solve the problems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faces through education. EIU's ultimate goal is to overcome conflicts in culture, religion and race to create the world to live together and cultivate the global citizens.

Meanwhile, UNESCO has been publishing history textbooks for reconciliation such as German-French history textbooks, German-Polish history textbooks,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and General History of Africa. In 1991, twelve EU Member States' leading historians participated in publishing the common European history textbook which contributed to establish such strong regional community in the world nowadays.

Starting in 2015, ten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planning to initiate the 'ASEAN Economic Community'(AEC). Since strengthening the social and cultural ties between the countries must be emphasized as well as the economic bond, 'Excavating the Shared History of Southeast Asia' is very

important for them as of now.

Until now, the regional history rather triggered traditional nationalism and hostility towards another country. However, this paper provides a venue to decrease the regional conflicts and reconcile through excavating the shared history, which could be the key to solve the local conflicts and disputes.

Finally, this paper deals with a healthy view of the history which allows us to look at the Southeast Asian history objectively and then proposes the framework to develop the shared history of Southeast Asia looking at the Europe's experience. Developing a culture of peace through history is a difficult project for just each government or civil society to handle. In this regard, if such prestig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UNESCO leads its way, it will contribute greatly to develop a social and cultural consensus of ASEAN community in 2015.

Key words : Shared History of Southeast Asia, Peace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Philosophy of Histor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투고신청일 : 2013. 11. 06

심사수정일 : 2013. 12. 21

게재확정일 : 2013. 12. 26